

종교의 '창'으로 본 우리 문화의 이해

최준식 지음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1·2)

황필호

강남대 종교철학과 교수

최준식 교수는 어느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작년 이맘때쯤 내가 속한 학회에서는 ‘한국사회의 천박성과 그 극복’이라는 다소 선정적인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1만불 소득에 OECD 가입 등 선진국 진입이 바로 코앞에 왔다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문화 전승자들은 이런 엉망진창인 문화를 가진 나라는 선진국에 들어간 적도 없고 또 들어가서도 안된다고 열을 올렸다. 그리고 한달 남짓 지나 IMF 사태가 터졌다. 그리고 지금은 제2의 건국을 한다지만, 이런 저질적인 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 논의가 없다. 정치체제나 경제체제도 고치면 되는 줄 안다. 방향도 없이 냅다 뛰자고만 한다.”

결국 한 사회에 대한 이해는 그 사회의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나를 포함한 인문학자들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해 온 ‘광야의 목소리’였다.

가치 중립성 지킨 반대한 저서

그러면 우리는 한 사회의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최교수는 문화의 중심점은 가족제도와 종교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족제도가 거의 전적으로 유교의 영향 밑에서 형성된 것이어서 문화의 이해는 바로 종교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말한다. 이것도 나를 포함한 종교철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이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주장해 온 ‘골방의 목소리’였다.

이렇게 보면 최교수의 전체적인 주장에는 전혀 새로운 면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는 반대한 저서로 일궈냈다는 사실이다. 사회 안에서의 문화의 중요성, 문화 안에서의 종교의 중요성을 주장하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구체적인 주제별로 나눈 뒤, 각각의 주제를 역사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실례를 곁들여서 설명하고 더구나 문장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최교수는 바로 이 작

사회 안에서 문화의 중요성, 문화 안에서 종교의 중요성을 주장하기는 쉬우나, 그 주장을 구체적 주제로 역사적·현실적 실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 이 책은 우리 사회 모든 종교문화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도 보통 사람들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게 정리한 역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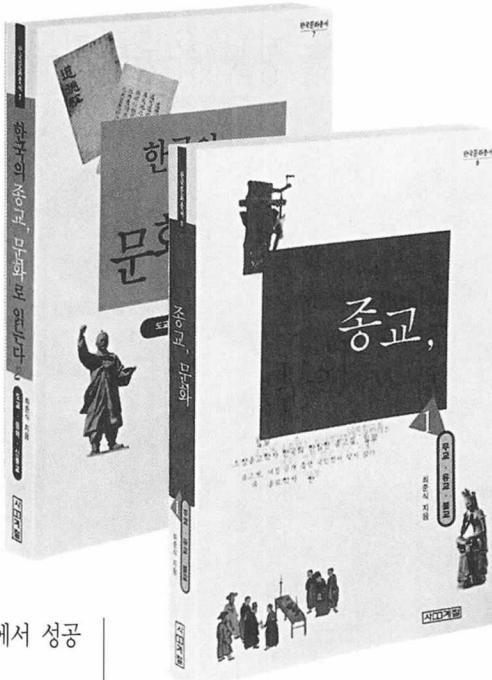
업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어떤 점에서 성공적인가?

첫째, 이 책은 가치중립성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순수한 가치중립성, 전제 없는 철학, 명석판명한 출발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후설이 그렇고 데카르트가 그렇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느 누가 감히 존재구속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마당에 어느 한 종교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종교문화를 진단하려는 입장을 완전히 초월한 이 책은 감히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책은 단편적이 아니라 포괄적이다. 우선 제1권은 무교·유교·불교를 담았고 제2권은 도교·신흥교·동학을 담았으며 앞으로 나올 제3권은 증산도·원불교·대종교·기독교를 담으면서 ‘한국종교의 현재와 전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참으로 방대한 작업이다.

셋째, 이 책은 단선적이 아니라 복선적이고, 분산적이 아니라 통합적이다. 즉 이 책은 ‘한 종교의 교리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종교서가 아니며 종교의 문화적 역할만을 한정해서 다룬 문화사도 아니다. 각 종교의 종교관을 깊고 구체적으로 다루면서도 한국이라는 사회의 문화를 그 문화의 층에 켜켜이 쌓여 있는 종교라는 틀을 통해 진단하는 통합적 시각을 놓치지 않고 있다.’

넷째,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종교를 전공하지 않은 보통사람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마



치 이규태의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연상시킨다고 할까.

실제로 저자는 ‘이 책을 내면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른바 학자라는 사람들이 ‘학자입네’ 하고 글을 어렵게 쓰는 것을 스스로라치게 싫어한다. 그런 글일수록 별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자기가 정말로 확실히 아는 주제라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쉽게 쓸 수 있다.(중략) 아울러 나는 다소 산만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내 자신의 이야기나 주변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이 책에 많이 집어넣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독자들이 이 두꺼운 책을 읽는 데 감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의 이런 주장도 거의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천박성’에 희생되지 않길

허나 이 책에도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 첫째, 우선 저자가 이 책을 써야 한다는 사망감에 짓눌려서 너무 빨리 쓴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권 제1장의 무교에는 ‘한국인의 원초적인 종교심성을 결정한 종교’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제2장의 유교에는 ‘한국인의 사회윤리를 결정한 종교’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그러나 제3장인 불교나 제2권의 도교·신흥교·천도교에는 아무런 부제가 없다. 불교는 ‘한국인의 생사관을 결정한 종교’

라고 하고, 도교는 ‘한국인의 자연관을 결정한 종교’ 등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자는 제2권 제2장에서 ‘신민족 종교’와 ‘신종교’를 혼용해서 사용한다. 이것도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다른 실례로 저자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독자 여러분도 어려운 글을 만나면 하나도 겁 먹을까 없다. 그런 글을 쓴 사람 자신도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 읽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나는 저자가 한 문장에 ‘때문에’를 두 번 사용할 정도로 문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빨리 쓰다 보니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자신의 이야기나 주변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저자도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사람이나 책에 대하여 만들어진 첫인상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별로 사라지지 않는다. 서양에는 “전통은 쉽게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첫 인상이 바로 마지막 인상이 되기 쉽다.

나는 저자의 이번 기념비적인 작업이, 다시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이런 ‘한국사회의 천박성’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저자는 제3권을 ‘가능한 한 빨리’ 내겠다고 약속한다. 제발 ‘가능한 한 늦게’ 내기를 바란다. 당장의 베스트셀러보다는 영원한 스테디셀러를 만들려면.

둘째, 이 책의 제목은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 종교로 읽는다》가 되어야 한다. 혹시 종교학자이기 때문에 종교를 설명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

셋째, 저자는 이 책에서 “내가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한다. 그런 부분이 더욱 많기를 바란다.

어쨌든 사회를 알려면 문화를 알아야 하고 문화를 알려면 종교를 알아야 된다는 주장은 만고의 진리일 것이다. 그리고 “이 민족의 장래는 정신문화를 곧추세우는 데 있다”는 것도 옳은 말이다. 저자의 역작에 감사드린다. ◆

사계절/A5신/각 430면 내외/각 12,000원